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탈세 혐의로 국내 송환

광주지법, 재판 지연에 강제구인
뉴질랜드 체류 7년째 법정 불출석
검찰, 신병 확보...재판재개 주목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 장기 체류하며 7년째 법정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강제구인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조세포탈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승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광주지검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 전 회장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밝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그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2019년 8월 첫 재판부터 출근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도주할 우려가 있

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효력 기간(1년)이 만료돼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그는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고, 2014년 3월 국내로 들어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노역장 닷새 등 총 엿새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합산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닷새 만에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중단했다.

노역 중단 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이후 추가 탈루와 재산문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틈을 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고, 법률 대리인만 출석한 재판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가산금까지 총 10억원여를 납부했다.

그는 또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여억원을 빼내 담양의 골짜기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한편 대주그룹은 1981년 창립된 대주건설을 모태로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급성장했다.

한때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연 매출 1조 2,000억원대를 기록했으나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200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공중분해 됐다. 최환준 기자



위기 탈출 안심 호신술 교육

26일 광주 일곡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위기탈출 안심 호신술 배움터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합기도 사범들로부터 머리채를 잡혔을 때 공격과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김태규 기자

‘헌법 전문 명문화’ 5·18재단, 국민동의청원 돌입

내달 20일까지 5만명 이상 목표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2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2·3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 힘을 얻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동의 목표는 오는 6월 20일까지 5만 명 이상이다.

청원운동의 첫 출발지는 지난 21일 국회였다. 재단측은 이번 청원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측은 지난 21일 이후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는 물론 전국 시민단체와 연계해 청원의 당

위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 사적지와 오월길 방문자센터, 송정역 등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청원 참여 호소에도 나서고 있다.

재단측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단순한 입법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의지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원운동기간 이후에도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월정신을 알리기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는 국가폭력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권·정의의 초석이다.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

은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사회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유산 계승이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은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폄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5·18단체와 전국 시민사회는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대선 후보를 비롯해 국회와 각 정당들에게 책임있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헌법을 통한 정의 실현의 시작이자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한 달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전 국민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수민 기자

조선대병원, 광주FC 경기 관람중 쓰러진 아이 구해

스포츠 현장 발빠른 의료지원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최근 광주FC 홈경기 도중 관중석에 쓰러진 어린이를 신속한 응급조치로 대처해 생명을 구했다.

2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 중 관중석에 있던 13세 어린이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다.

주심의 요청에 따라 투입된 의료진은 광주FC 응원석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긴급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어린이는 발빠른 대처 덕분에 의식을 회복했다.

현장에 투입된 박수철 조선대병원 간호사는 “관중석에서 구조 요청이 있었고 주심의 휘슬 소리가 들리자마자 경기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응원석으로 빠르게 뛰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갔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환자의 입술이 바짝 마르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체온이 상당히 높았다. 다행히 의식은 조금 있었고, 신속한 체온 조절과 수분 공급이 필요했다”면서 “그날진 경기장 밖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 뒤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현장에 있던 의료진 간 팀워크가 잘 맞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FC의 공식 의료 파트너로서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급급차 및 의료진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준영 정형외과 교수가 광주FC의 팀 주치의로 활동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K리그 경기뿐 아니라 각종 지역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의료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운전자 금고형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

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으로 주행하다가 초등학생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 제거, 2·3인 1조 근무 원작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